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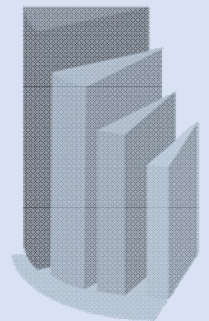
제1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06.01)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3
II. 주요 조사 항목	4
III. 가중값 배율	5
IV. 표본의 특성	6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9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5

PART 1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 조사 규모** ▶ 총 1,512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90.0%) + 유선전화 RDD(10.0%)
- 응답률** ▶ 14.1%(무선전화 14.9%, 유선전화 9.8%)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9일(월) ~ 10일(화) (총 2일간)
-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Ⅱ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참여 의향
-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 지지후보/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평가
-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인지도
 - 지방선거 1인 7표제 인지도
 - 교육감 선거의 정당 무관성 인지도
- ▶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 ▶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시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목표할당[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체		1,512	100.0	1,512	100.0	1.00
성별	남자	756	50.0	750	49.6	0.99
	여자	756	50.0	762	50.4	1.01
연령별	18~29세	222	14.7	259	17.2	1.17
	30대	204	13.5	228	15.1	1.12
	40대	276	18.3	279	18.4	1.01
	50대	308	20.4	295	19.5	0.96
	60대	276	18.3	247	16.4	0.90
	70세 이상	226	14.9	203	13.4	0.90
지역별	서울	276	18.3	284	18.8	1.03
	인천/경기	473	31.3	478	31.6	1.01
	대전/세종/충청	168	11.1	161	10.6	0.96
	광주/전라	151	10.0	148	9.8	0.98
	대구/경북	147	9.7	148	9.8	1.01
	부산/울산/경남	231	15.3	228	15.1	0.99
	강원/제주	66	4.4	65	4.3	0.99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512	100.0
성별	남자	750	49.6
	여자	762	50.4
연령별	18~29세	259	17.2
	30대	228	15.1
	40대	279	18.4
	50대	295	19.5
	60대	247	16.4
	70세 이상	203	13.4
권역별	서울	284	18.8
	인천/경기	478	31.6
	대전/세종/충청	161	10.6
	광주/전라	148	9.8
	대구/경북	148	9.8
	부산/울산/경남	228	15.1
	강원/제주	65	4.3
직업별	화이트칼라	560	37.0
	블루칼라	148	9.8
	자영업	246	16.3
	농/임/어업	29	1.9
	가정주부	290	19.1
	학생	87	5.8
	무직/기타/무응답	153	10.1
학력별	중졸 이하	161	10.6
	고졸	372	24.6
	대재 이상	964	63.8
	모름/무응답	14	1.0
소득별	200만원 이하	285	18.8
	201-400만원 이하	377	24.9
	401-700만원 이하	407	26.9
	701만원 이상	262	17.4
	모름/무응답	181	12.0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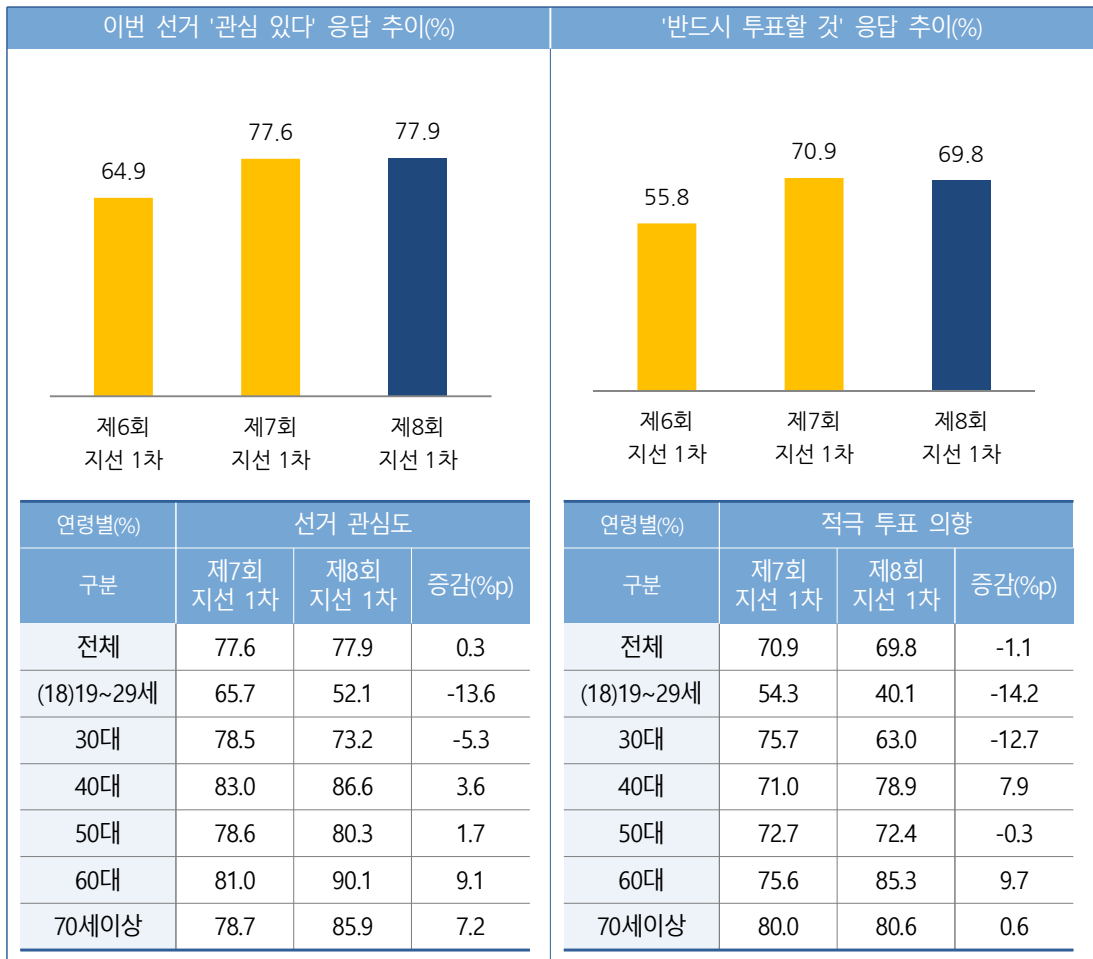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 있음’ 77.9%, ‘반드시 투표할 것’ 69.8%

→ 제7회 지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40대와 60대에서 상승하였으며,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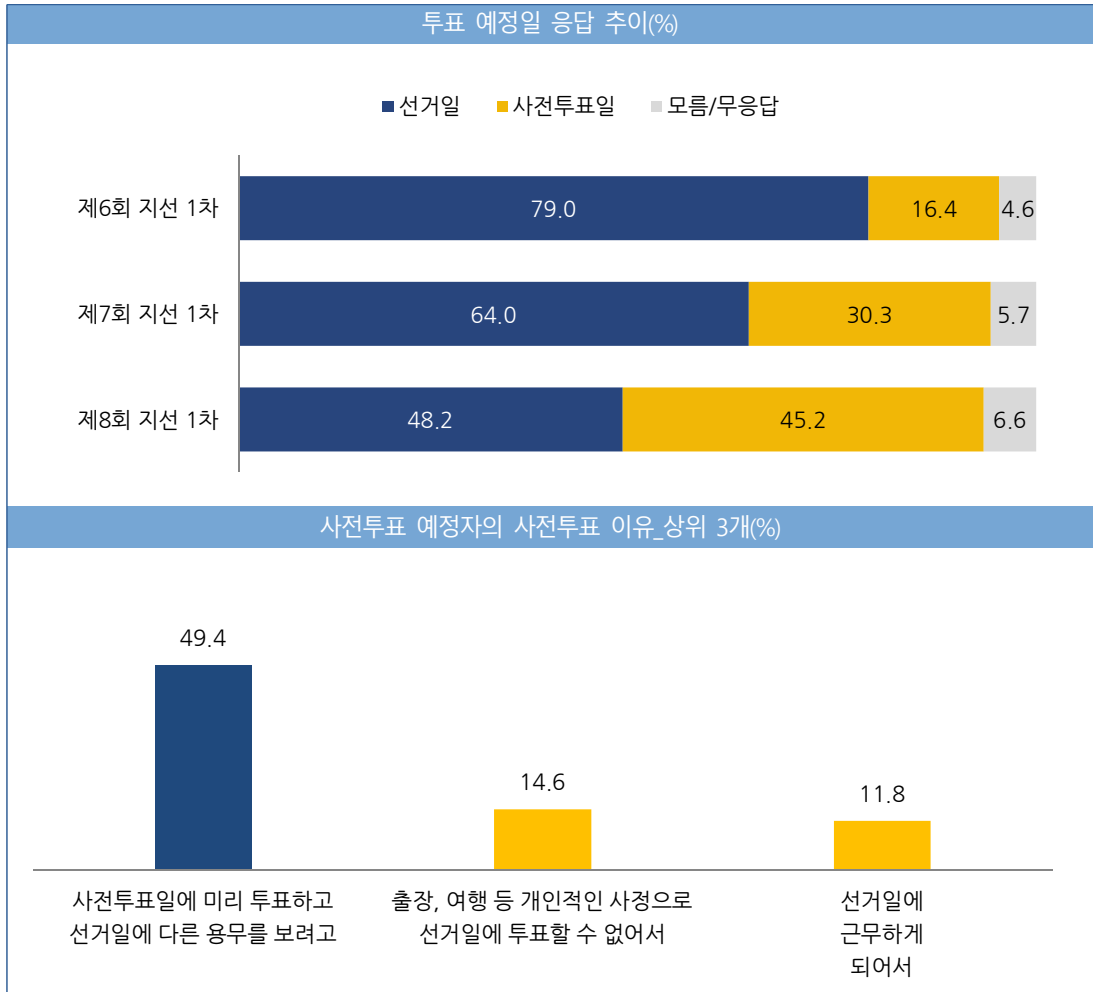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및 사전투표 이유

● 선거일 투표 48.2%, 사전투표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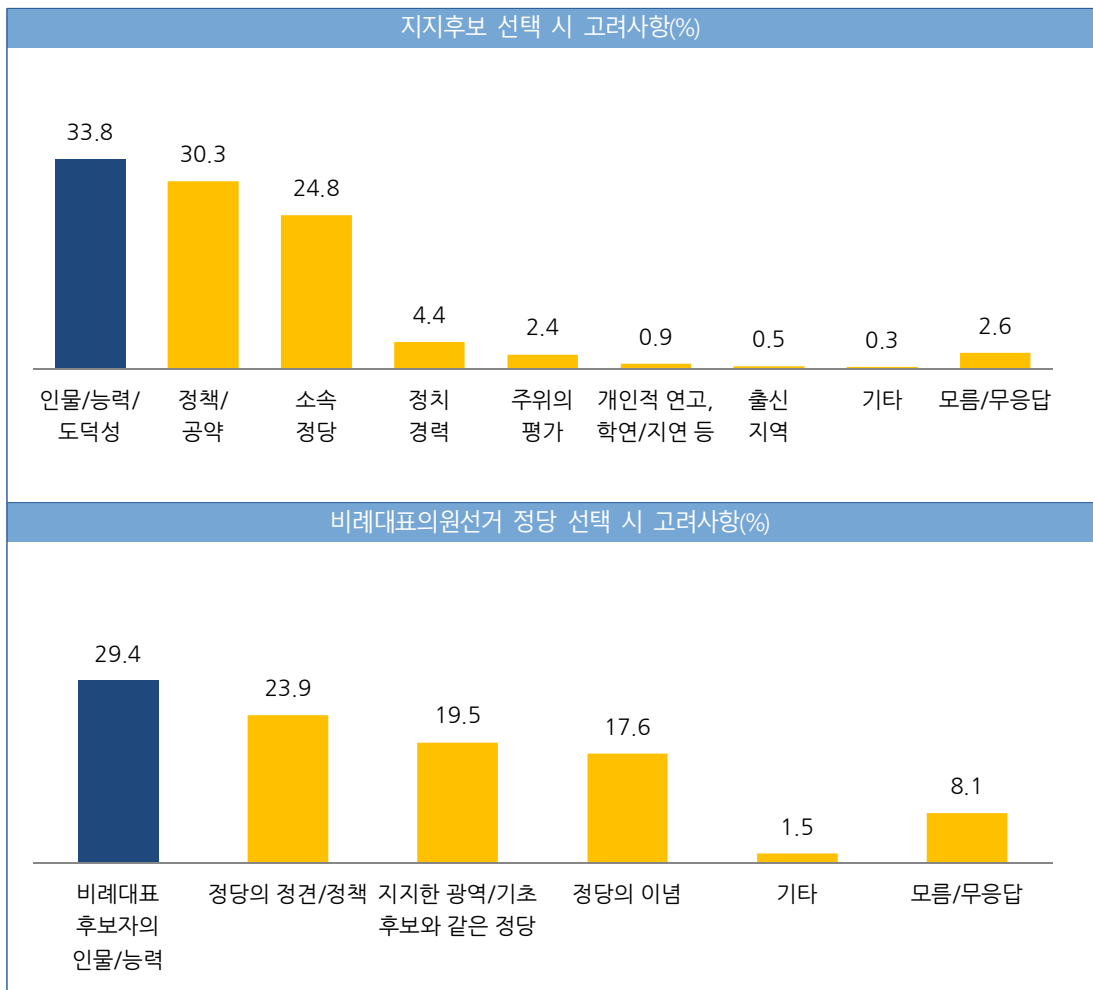
→ 사전투표 의향 제6회 지선 1차 대비 28.8%p, 제7회 지선 1차 대비 14.9%p 크게 증가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3. 지지후보 선택 및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지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33.8%)과 ‘정책·공약’(30.3%)이 가장 중요
-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9.4%)과 ‘정당의 정견·정책’(23.9%)이 가장 중요
 - 지지후보 및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모두 ‘인물·능력’,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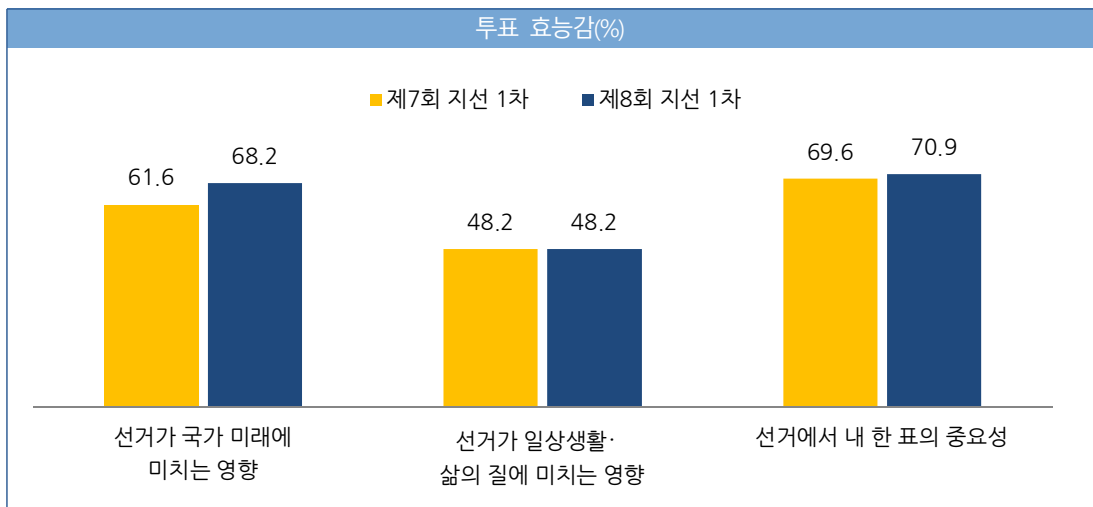




4. 투표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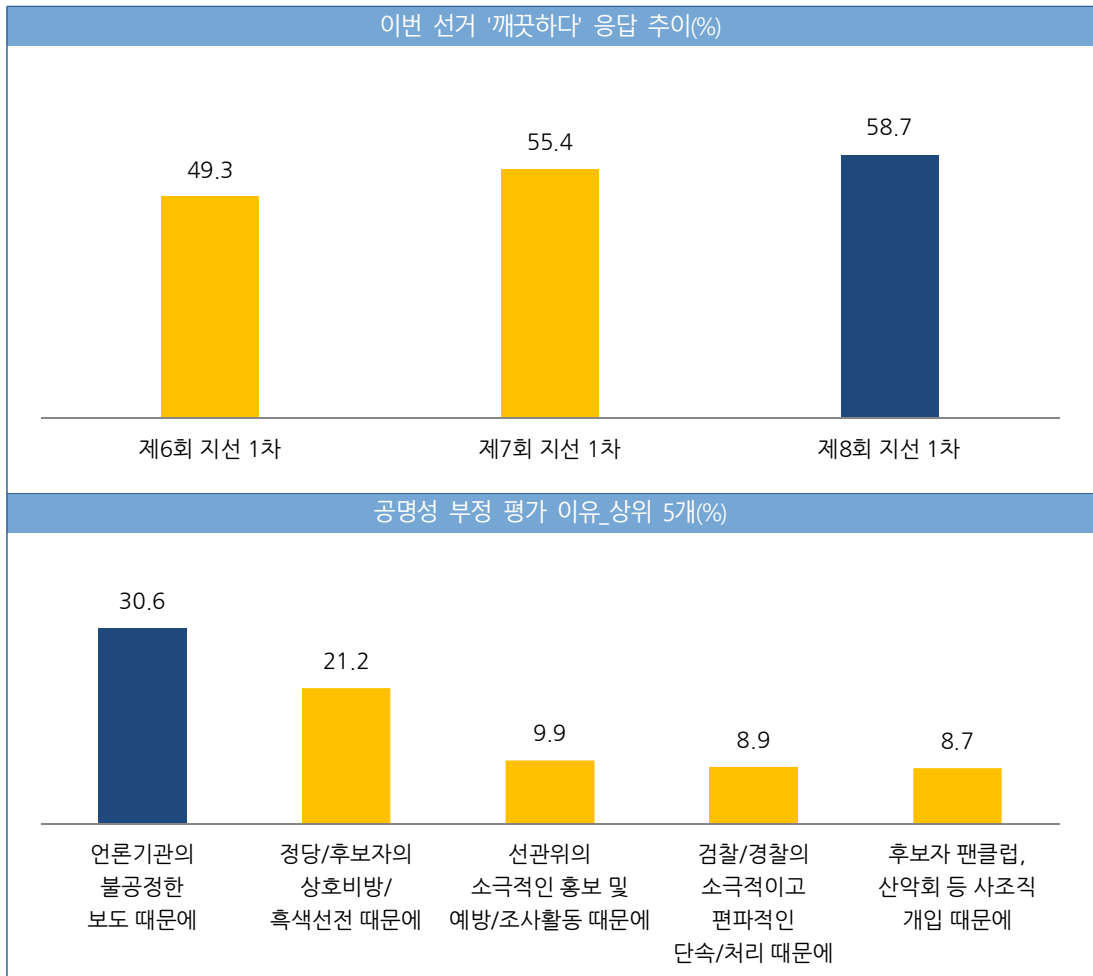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0.9%),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2%),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4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0.9%)과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2%)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이전 선거 대비 증가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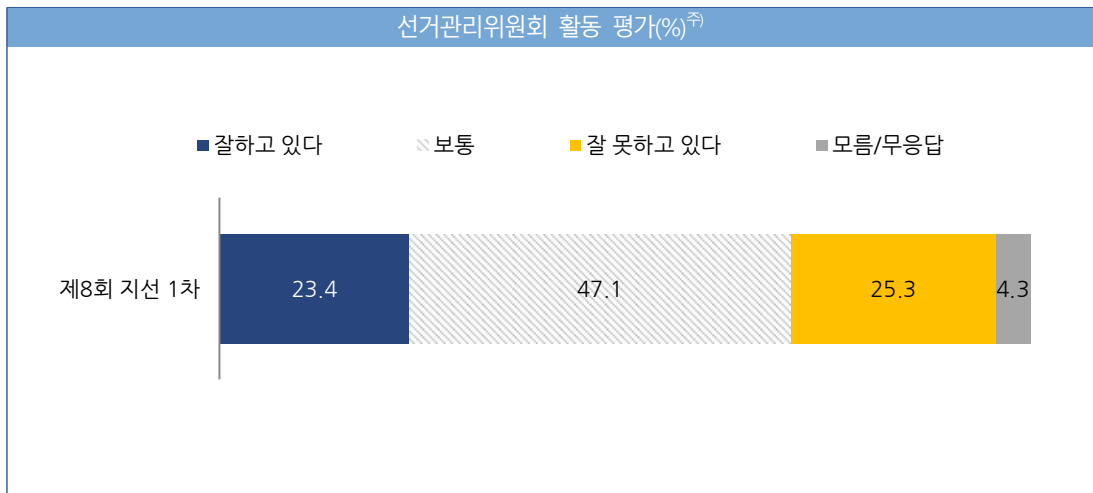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58.7%,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6.0%
 - 제6회 지선 이후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 증가 추세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로는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3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6.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23.4%, 부정평가(25.3%)보다 낮게 나타남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55.1%)를 응답함



주) 제7회 지선 1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 잘 하고 있는 편이다)’ 64.0%, ‘잘 못하고 있다(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2.9%, ‘모름/무응답’ 13.1%로 나타남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_상위 3개 ^{주)} (%)	제6회 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3.2	34.2	55.1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0.7	25.3	14.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2.6	12.9	10.5

주)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상위 3개는 제8회 지선 1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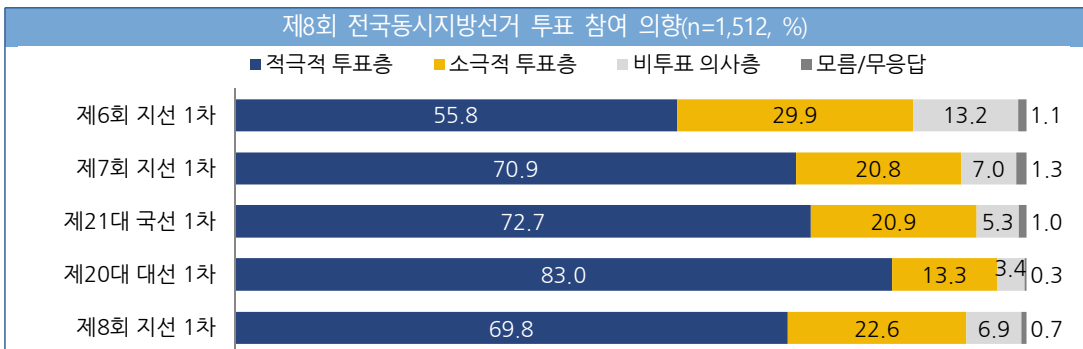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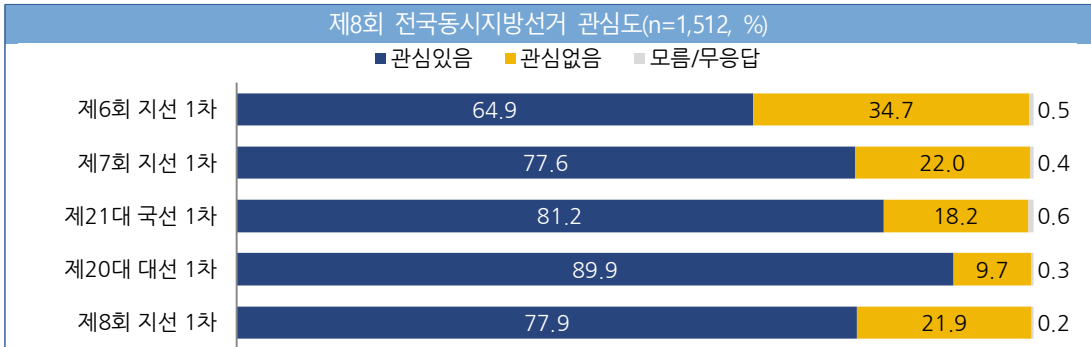
Ⅱ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심 있음’ 77.9%, ‘반드시 투표할 것’ 69.8%

→ 제7회 지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40대와 60대에서 상승하였으며,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음’ 41.0%, ‘약간 관심 있음’ 36.9% 등 유권자의 77.9%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69.8%로 조사됨
- 18~29세(이하 ‘20대 이하’) 연령층의 관심도와 투표의향이 직전 국선/지선 대비 크게 하락하여, 타 세대 대비 관심도 및 투표의향의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6회 지선 1차 ^{주)}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6회 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전체	64.9	77.6	81.2	89.9	77.9	55.8	70.9	72.7	83.0	69.8
(18)19~29세	56.5	65.7	64.3	77.0	52.1	43.9	54.3	52.8	66.4	40.1
30대	58.2	78.5	83.3	90.2	73.2	45.2	75.7	71.3	84.1	63.0
40대	64.4	83.0	87.6	90.2	86.6	54.3	71.0	77.0	81.7	78.9
50대	67.5	78.6	82.7	93.5	80.3	58.6	72.7	73.8	87.2	72.4
60대	81.0	88.1	94.6	90.1	90.1	74.7	75.6	83.8	89.8	85.3
70세 이상	76.0	78.7	82.9	95.3	85.9	74.7	80.0	82.5	90.7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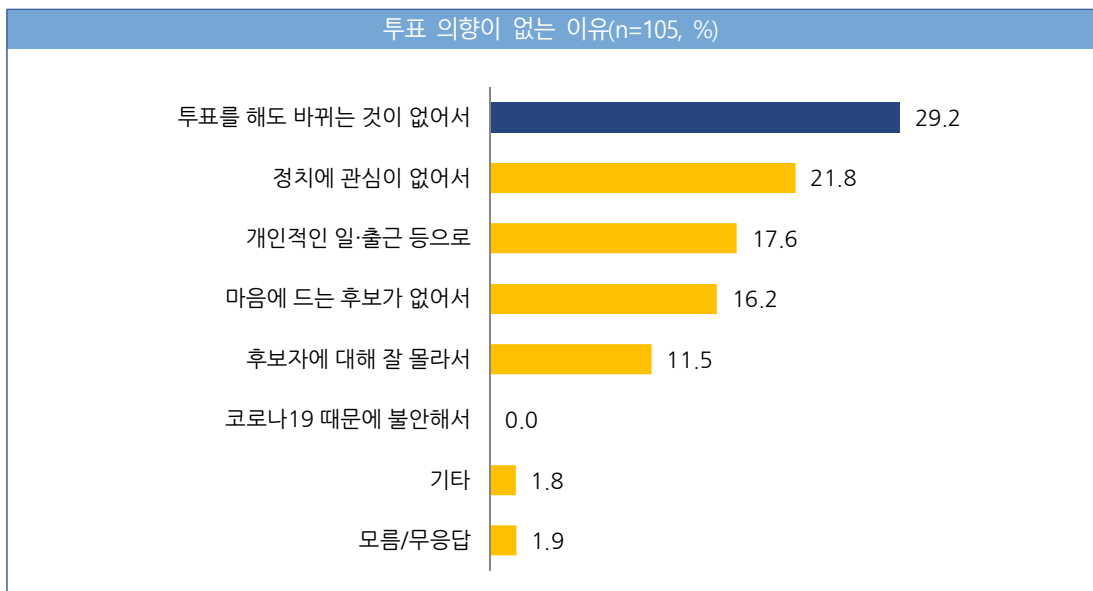
주) 제6회 지선 1차는 60대 이상으로 조사



2.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1.8%),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제7회 지선 1차 대비 낮게 나타난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1.8%),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17.6%)라는 응답은 제7회 지선 1차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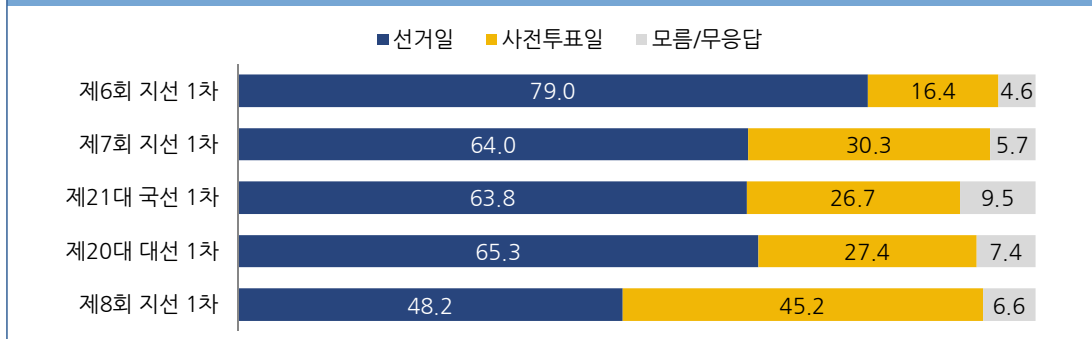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6회 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n=198)	(n=105)	(n=80)	(n=51)	(n=105)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50.3	34.8	33.9	17.2	29.2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3.6	18.8	20.0	13.8	21.8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1.3	9.5	1.1	6.0	17.6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4.8	13.6	9.6	55.2	16.2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0	21.7	16.9	4.0	11.5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14.4	2.0	0.0
기타	2.3	0.8	2.3	1.9	1.8
모름/무응답	1.8	0.8	1.7	0.0	1.9

3.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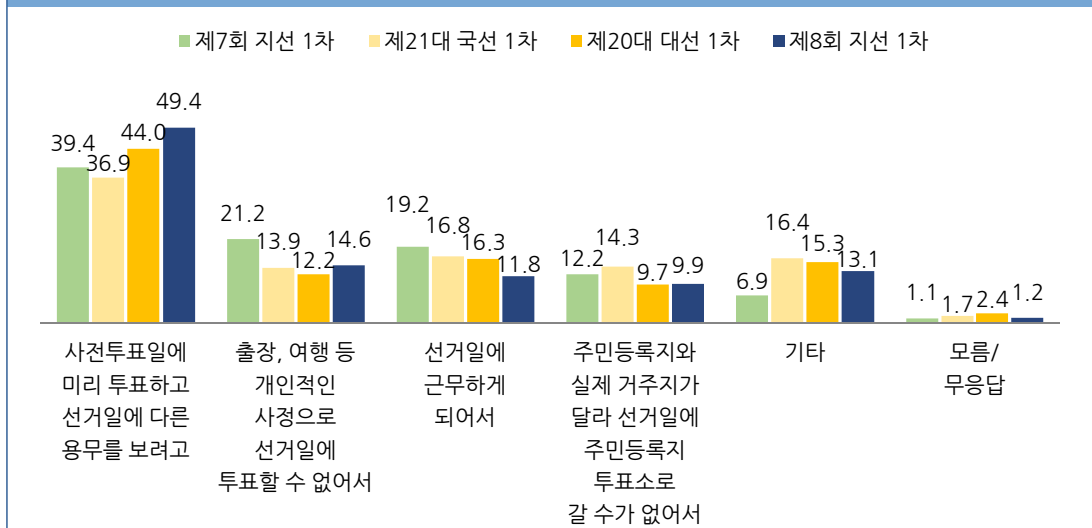
- 사전투표 의향 45.2%로 제7회 지선 대비 14.9%p, 제20대 대선 대비 17.8%p 증가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9.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제7회 지선부터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의향자의 48.2%는 '6월 1일'에 투표하겠다, 45.2%는 '5월 27일 또는 28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7회 지선, 제20대 대선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보다 높게 나타남
- 사전투표 이유로는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9.4%로 제7회 지선(39.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14.6%),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11.8%)는 제7회 지선(각 20% 내외)보다 낮아짐

투표 예정일 응답 추이(n=1,397, %)



사전 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n=6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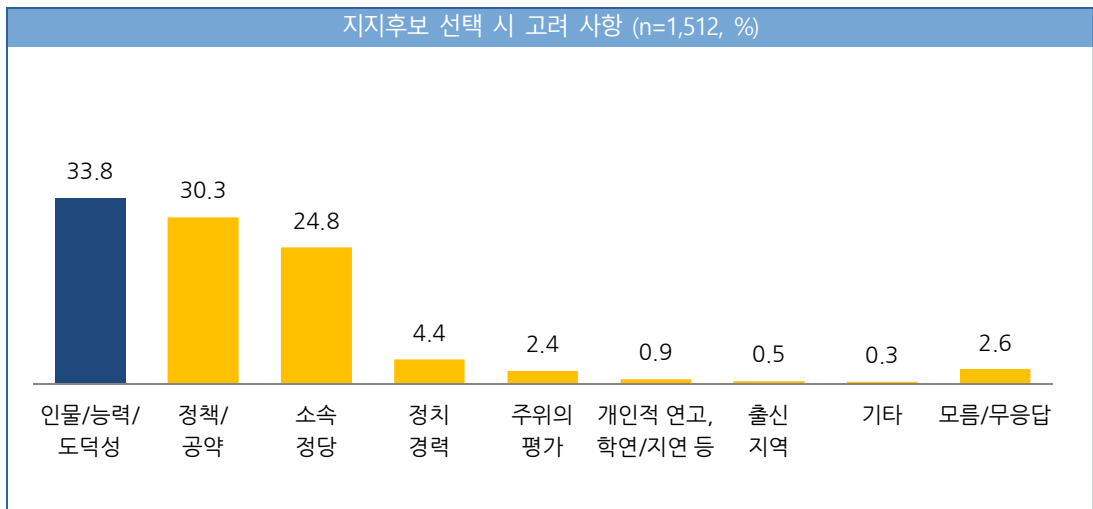




4. 지지후보 및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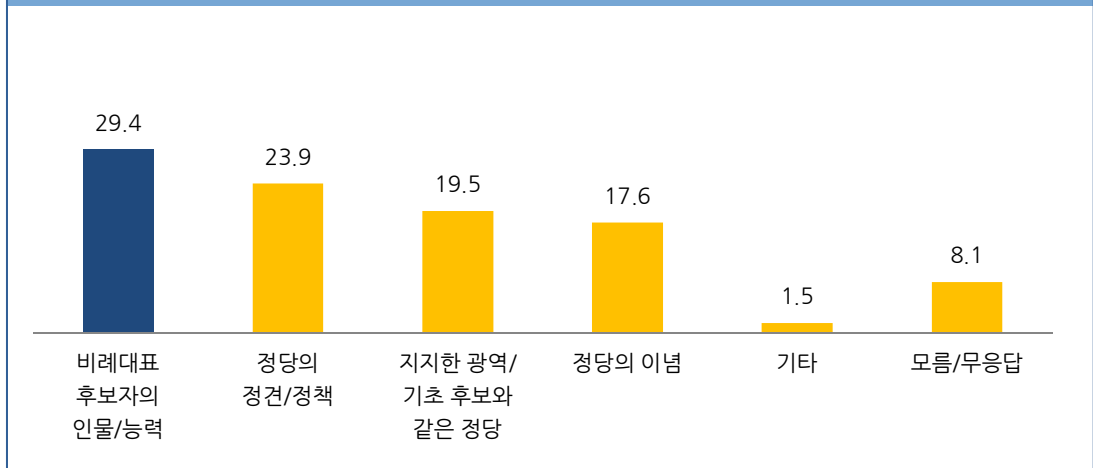
- 지지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33.8%)과 ‘정책·공약’(30.3%)이 가장 중요
-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9.4%)과 ‘정당의 정견·정책’(23.9%)이 가장 중요
-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지후보 및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모두 ‘인물·능력’,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선거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물·능력·도덕성’이 33.8%, ‘정책·공약’이 30.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경력’(4.4%), ‘주위의 평가’(2.4%) 등은 낮게 나타남
-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역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9.4%)과 ‘정당의 정견·정책’(23.9%)이 높았고, 다음으로 ‘지지한 광역·기초 후보자와 같은 정당’(19.5%), ‘정당의 이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정치 경력	주위의 평가	개인적 연구, 학연/지연 등	출신 지역	기타	모름/무응답
제5회 지선 1차	33.3	29.3	14.6	3.7	7.1	0.8	1.2	0.8	9.3
제6회 지선 1차	37.3	33.5	14.6	4.0	4.8	0.4	0.5	0.7	4.3
제7회 지선 1차	37.6	28.2	19.9	4.9	3.3	0.6	0.8	0.9	3.8
제8회 지선 1차	33.8	30.3	24.8	4.4	2.4	0.9	0.5	0.3	2.6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n=1,512, %)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정당의 정견/정책	지지한 광역/기초 후보와 같은 정당	정당의 이념	기타	모름/무응답
제6회 지선 1차	32.9	24.3	16.4	18.9	0.3	7.3
제7회 지선 1차	28	29.2	13.1	21.1	0.9	7.7
제8회 지선 1차	29.4	23.9	19.5	17.6	1.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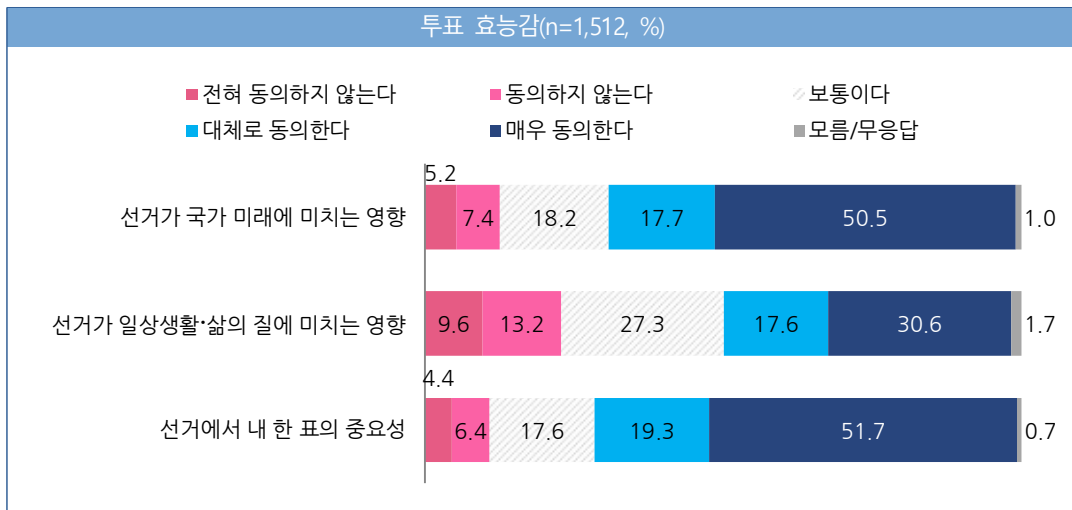


5.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0.9%),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2%),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4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68.2%)과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0.9%)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제7회 지선 대비 증가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7회 지선 대비 증가하였으며, 두 항목의 동의 비율은 약 70%로, 투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보임
-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비율은 48.2%로 제7회 지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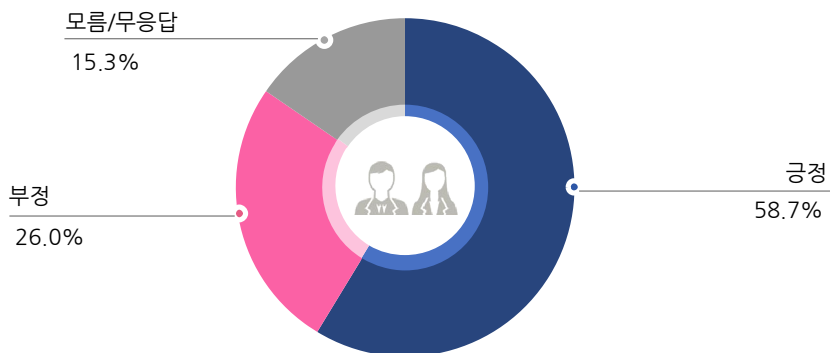
투표 효능감 '동의' (%)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61.6	65.8	78.7	68.2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8.2	51.7	56.8	48.2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69.6	74.7	74.5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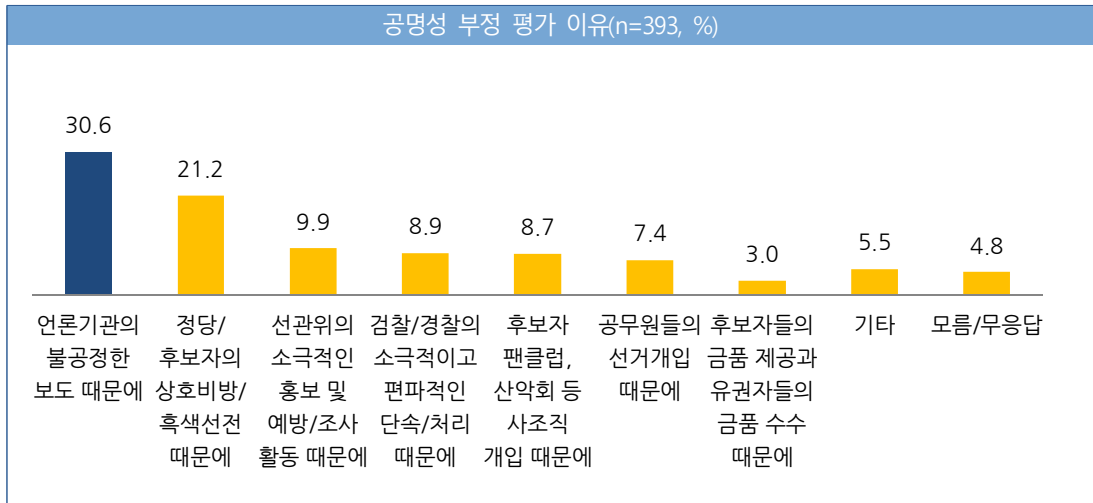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58.7%, ‘깨끗하지 못하다’ 26.0%
 - 공명성 긍정 평가, 직전 선거인 제20대 대선보다 18.9%p 크게 상승하였으며, 역대 지선 대비 증가 추세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불공정 보도’(30.6%),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1.2%)
 - 지난 지선 대비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은 감소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8.8%,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49.9% 등 유권자의 절반 이상(58.7%)이 공명성에 대해 긍정 평가해 부정 평가(26.0%)보다 32.7%p 더 많음. 공명성 긍정평가는 제6회 지선 이후 증가 추세이며, 직전 선거인 제20대 대선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명성 긍정 평가는 5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 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30.6%)와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1.2%)에 응답 집중되었으나, 제7회 지선과 비교해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응답은 16.6%p 감소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성 평가(n=1,5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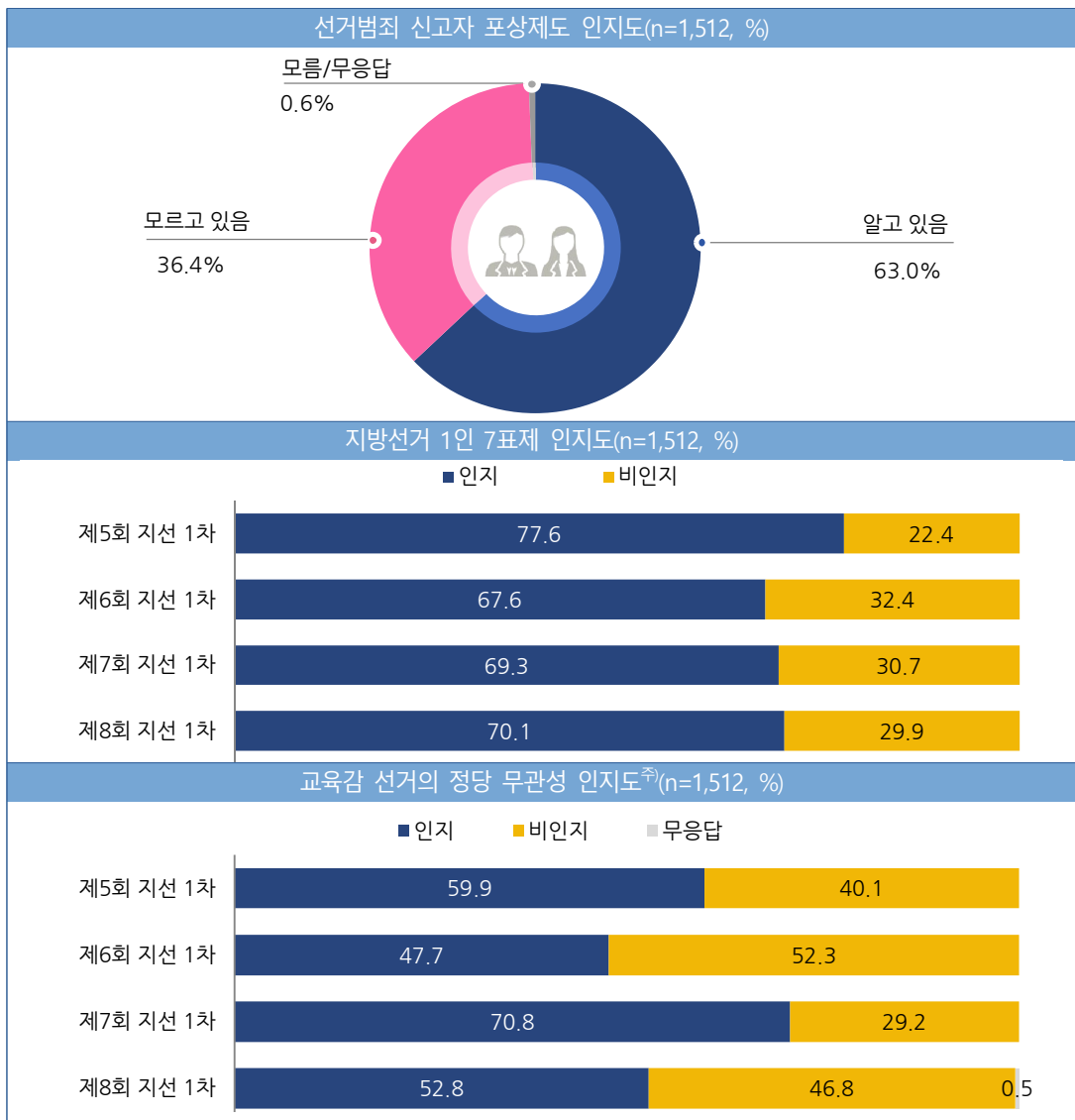
공명성 평가(%)	선거 공명성		공명하지 않은 이유_상위 3개 ^{주)}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정당 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선관위의 소극적 홍보 및 예방/조사 활동
제6회 지선 1차	49.3	34.2	24.8	30.9	8.5
제7회 지선 1차	55.4	26.8	20.4	37.8	5.0
제21대 국선 1차	49.8	32.3	29.0	27.2	5.3
제20대 대선 1차	39.8	50.5	30.1	34.4	4.0
제8회 지선1차	58.7	26.0	30.6	21.2	9.9

주)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_상위 3개는 제8회 지선 1차 기준임

7.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알고 있다' 63.0%
- 지방선거 1인 7표제 '알고 있다' 70.1%, 교육감 선거의 정당 무관성 '알고 있다' 52.8%
 - 유권자의 70%가 지방선거 1인 7표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육감 선거의 정당 무관성은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인지

- 이번 지방선거가 1인 7표제(제주 5표, 세종 4표)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70.1%로 제7회 지선과 비슷한 수준임
- 반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유권자는 52.8%로 나타나 지방선거 1인 7표제 인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주) 제7회 지선 1차에서는 전체 유권자가 아닌 지방선거 1인 7표제 인지자를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당 무관성을 질문하여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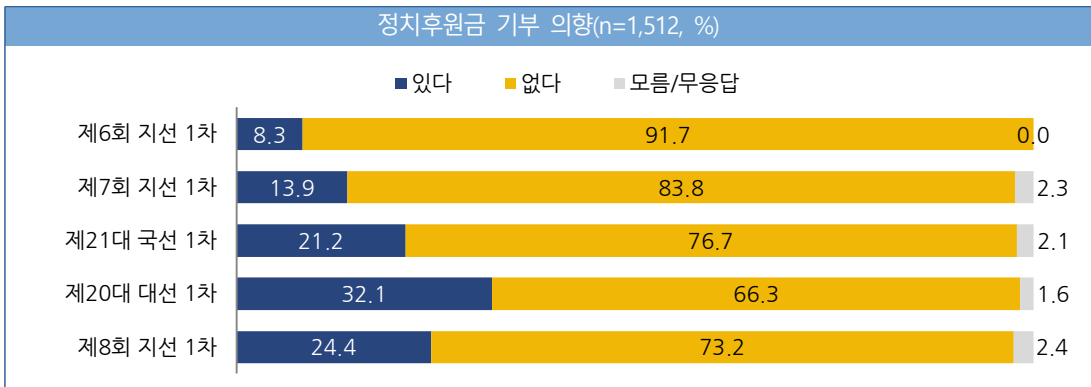


8.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 지지후보자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24.4%, 제7회 지선 대비 10.5%p 상승

→ 20대 이하의 기부 의향(9.8%)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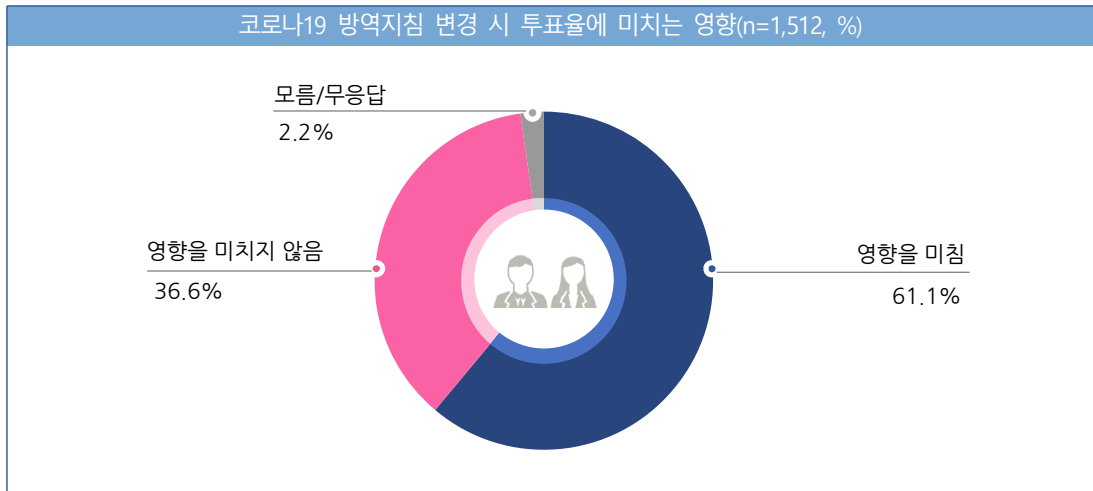
- 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24.4%, '없다' 73.2%로 직전 선거인 제20대 대선(32.1%) 대비 감소하였으나 제7회 지선 대비 10.5%p 크게 상승함
- 특히, 40·50대의 기부 의향이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앞서 각종 선거 제도 인지도 및 선거 관심도, 투표 참여 의향 낮았던 20대 이하의 기부 의향 또한 9.8%로 각 세대 중 가장 낮음



9.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시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침' 61.1%

-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선거인과 투표하게 될 경우,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 15.7%,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5.5% 등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투표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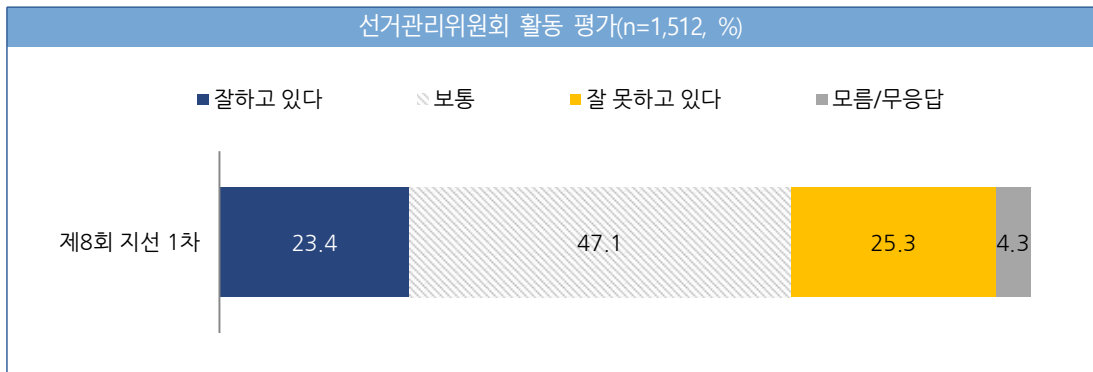


10.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23.4%로 부정평가(25.3%)보다 낮게 나타남

→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긍정평가가 25.6%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15.9%)보다 높았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2.9%, ‘잘하고 있는 편이다’ 20.5% 등 긍정평가가 23.4%로 부정평가(25.3%)보다 낮게 나타남. 선거 관심 있는 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선거 관심 없는 층에 비해 높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보통	잘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23.4	47.1	25.3	4.3
선거 관심 있는 층	25.6	42.9	27.5	4.0
선거 관심 없는 층	15.9	61.7	17.4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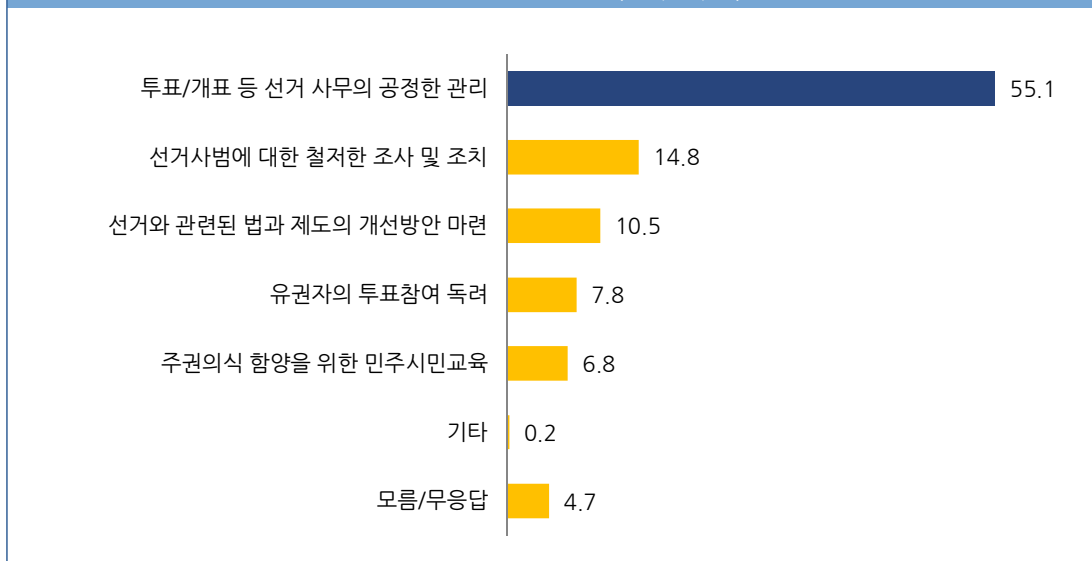
11.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55.1%)를 응답함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1순위로 응답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14.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0.5%,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6회 지선 시부터 계속하여 1순위로 응답됨. 반면 제7회 지선 대비 '선거 사범 조사/조치'와 '투표 참여 독려'는 응답 감소함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n=1,512,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제6회 지선 1차	제7회 지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3.2	34.2	40.4	51.7	55.1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주)}	20.7	25.3	21.1	15.8	14.8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2.6	12.9	14.5	11.6	10.5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14.7	13.0	10.9	8.8	7.8
주권의식 함양 위한 민주시민 교육	-	10.0	7.4	6.8	6.8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12.4	-	-	-	-
기타	0.1	0.6	0.5	0.5	0.2
모름/무응답	6.3	4.0	5.2	4.9	4.7

주) 제6회 지선 1차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로 보기 제시